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10.12

나스닥, 기대 인플레이 완화 불구 베일리 BOE 총재 발언으로 부진

서상영 sangyoung.seo@miraes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영국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로 매물 출회되며 나스닥이 1.8%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그러나 영국 BOE가 추가 정책을 발표하고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보이자 달러 약세가 확대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 다만 장 후반 영국 베일리 총재의 발언으로 파운드화가 약세로 전환하자 주식시장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되며 결국 나스닥이 1% 넘게 하락(다우 +0.12%, 나스닥 -1.10%, S&P500 -0.65%, 러셀2000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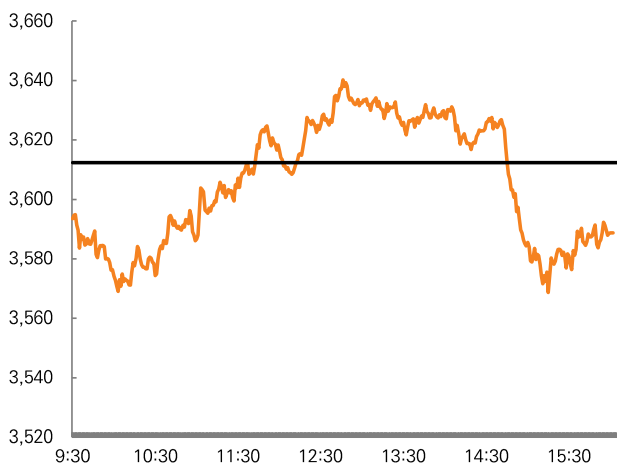
특이 종목

- 마이크론(+4.53%)은 뉴욕에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90억 달러 이상의 세금 공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 그러나 미국 정부의 대 중국 반도체 제재 여파가 지속되며 램리서치(-6.75%), AMAT(-3.65%) 등 반도체 장비 업종 등 하락은 지속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0% 하락. 넷플릭스(-6.82%)는 BOA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부정적인 평가를 발표하자 하락. 메타 플랫폼(-3.92%)도 애플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 확대를 이유로 이익 둔화 우려를 감안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16%, MSCI 신흥 지수 ETF는 1.5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431.6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4%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최근 하락 이슈가 지속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기대 인플레이가 완화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며 장중에 상승 전환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0% 하락했으나 마이크론이 4.53% 상승한 점은 우호적. 그러나 베일리 BOE 총재의 연기금에 대한 경고 및 추가적인 조치가 결국은 일시적이라고 주장한 후 파운드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하며 나스닥이 하락한 점은 부담. 여전히 영국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 후 실적 개선 종목군 및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192.07	-1.83	상해종합	2,979.79	+0.19
KOSDAQ	669.50	-4.15	홍콩항셍	16,832.36	-2.23
DOW	29,239.19	+0.12	베트남	1,006.20	-3.48
NASDAQ	10,426.19	-1.10	유로스톡스 50	3,340.35	-0.49
S&P 500	3,588.84	-0.65	영국	6,885.23	-1.06
캐나다	18,216.68	-1.97	독일	12,220.25	-0.43
일본	26,401.25	-2.64	프랑스	5,833.20	-0.1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미국 기대 인플레이 ② 베일리 BOE 총재

뉴욕 연은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난달 발표된 5.7%에서 5.4%로 하향 조정하며 2021년 9월 이후 1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물론 여전히 역대 평균인 5% 초반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임대료가 9.6%에서 9.7%로 상향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점은 달러 강세 추세를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음

더불어 가계 지출 기대치는 7.8%에서 6.0%로 감소해 월간 하락 폭이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결국 연준의 긴축 조치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줘 지난 9월 FOMC에서 발표했던 금리 전망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킨 점도 달러 약세 요인

한편, 영국 BOE가 금융안정에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긴급 조치를 발표. 특히 연기금이 채권가격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가연동국채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 정부의 감세안 발표로 인한 변동성이 확대되자 긴급 조치를 세번째 발표한 것. 이에 시장은 안정을 보임

그러나 장 후반 베일리 BOE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길트채의 전례 없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실질적인 문제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 더불어 연기금 관계자들에게 이번주 금요일까지 포지션의 재조정을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제 3일 남았다’라며 경고. 특히 이번 시장 개입은 일시적이라고 주장. 이러한 베일리 총재의 발언은 결국 더 이상 추가적인 정책에 기대지 말고 연기금 자체적으로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고 지시한 것. 당장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베일리 총재의 경고로 장 후반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했으며 국채금리도 상승폭을 확대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마이크론 급등 Vs.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마이크론(+4.53%)은 뉴욕에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90억 달러 이상의 세금 공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 그러나 미국 정부의 대 중국 반도체 제재 여파가 지속되며 램리서치(-6.75%), AMAT(-3.65%) 등 반도체 장비 업종은 물론 퀄컴(-3.99%), 온 세미컨덕터(-3.97%) 등 여타 반도체 업종의 하락은 지속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0% 하락

넷플릭스(-6.82%)는 BOA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부정적인 평가를 발표하자 하락. 메타 플랫폼(-3.92%)도 애플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 확대를 이유로 이익 둔화 우려를 감안 투자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우버(-10.43%)와 리프트(-12.02%)는 운전자가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는 규칙을 발표하자 실적 부진 우려 속 하락. JP모건(-2.89%), BOA(-2.90%) 등 금융주는 경기 침체 우려로 총당금을 50억 달러 구축한다는 소식에 하락

암젠(+5.72%)은 모건스탠리가 방어주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투자자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강세. 애브비(+2.31%), 브리스톨 마이어스(+1.71%), 머크(+0.63%) 등도 동반 상승. 월그린 부츠(+2.42%)는 의료회사인 케어센트릭스 인수 발표하자 강세. 월마트(+2.59%)는 헬스케어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상승. 포드(+1.76%)는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에 힘입어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11	대형 가치주 ETF (IVE)	-0.21
클린테크 ETF (CTEC)	-1.49	중형 가치주 ETF (IWS)	-0.23
소매업체 ETF (XLY)	-0.82	소형 가치주 ETF (IWN)	+0.39
온라인소매 ETF (EBIZ)	-2.62	대형 성장주 ETF (VUG)	-1.32
미국 인프라 ETF (PAVE)	+0.08	중형 성장주 ETF (IWP)	-1.03
핀테크 ETF (FINX)	-1.72	소형 성장주 ETF (IWO)	-0.27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2.88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28
클라우드 ETF (CLOU)	-2.06	신중국 고배당 ETF (SDEM)	-0.41
사이버보안 ETF (BUG)	-1.29	신중국 저변동 ETF (EEMV)	-1.01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44	미국 국채 ETF (IEF)	+0.25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77	하이일드 ETF (JNK)	+0.31
바이오섹터 ETF (IBB)	+0.19	신중국 채권 ETF (EMBD)	-0.21
곡물 ETF (DBA)	-0.39	물가연동채 ETF (TIP)	+0.57
반도체 ETF (SMH)	-3.15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21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부동산	216.16	+1.02	-7.58	-19.59
필수소비재	701.50	+0.93	-2.40	-8.69
헬스케어	1,428.76	+0.58	-3.14	-5.83
산업재	723.10	+0.01	-3.23	-9.95
유틸리티	323.44	-0.27	-7.54	-17.29
소재	434.81	-0.74	-5.06	-11.15
에너지	611.54	-0.75	+0.28	-0.11
경기소비재	1,093.99	-0.81	-6.10	-15.19
금융	504.56	-1.30	-6.28	-11.35
IT	2,049.38	-1.52	-7.52	-14.55
통신	160.95	-1.63	-6.08	-14.4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발 매수 속 경기 방어주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16%, MSCI 신흥 지수 ETF는 1.5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431.6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4%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미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간 여파로 부진. 특히 달러/원 환율이 23원 급등을 하며 1,435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장중 외국인의 수급 불안도 부담. 그렇지만, 장 초반 낙폭을 키웠던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로 축소되자 지수의 하락폭도 일부 축소되며 KOSPI는 1.83% 하락으로 마감. 다만, KOSDAQ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낙폭이 확대돼 4.15%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최근 하락 이슈가 지속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BOE의 추가 정책 발표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자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며 장중에 상승 전환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0% 하락했으나 마이크론이 4.53% 상승한 점은 관련 종목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그러나 베일리 BOE 총재의 연기금에 대한 경고 및 추가적인 조치가 결국은 일시적이라고 주장한 후 파운드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하며 미 증시가 하락한 점은 부담. 여전히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영국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 후 실적 개선 종목군 및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뉴욕연은, 1년 기대인플레이션 5.7%→5.4%로 하향

미국 9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91.80이나 예상치인 91.5를 상회한 92.1로 발표했으나 여전히 기준선은 하회

미국 10월 IBD/TIPP 경기 낙관지수는 44.7에서 41.6으로 하락. 미국 경제가 침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9%에서 61%로 높아졌으며 실직에 대한 우려도 34%에서 38%로 상승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7%에서 5.4%로 하락한 가운데 가계 지출도 7.8%에서 6.0%로 하락. 높은 주가에 대한 기대는 36.4%에서 35.3%로 하락

상품 및
FX시장 동향

파운드화, 베일리 BOE 총재 발언으로 약세 전환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강화 소식에 따른 수요 둔화 이슈도 하락 요인. 이런 가운데 영국 베일리 총재 발언 후 파운드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하는 등 영국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경기 침체 이슈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낙폭이 좀더 확대되며 마감

달러화는 장 초반 기대 인플레이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임. 특히 BOE가 물가 연동국채 매입을 발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로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영향. 그러나 장 후반 베일리 BOE 총재가 최근 발표되는 조치는 일시적이며, 연금금 관계자들에게 포트폴리오 변경을 언급하는 등 강도높은 경고를 하자 파운드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 이 여파로 달러화는 결국 강세 전환

국채금리는 뉴욕 연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7%에서 5.4%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가계 소비 지출 전망도 하락하자 단기물 중심으로 하락. 그러나 장기물의 경우 영국발 금리 상승 여파로 상승세가 지속. 3년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45배를 상회한 2.57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높은 점도 단기물 하락 요인

금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속 소폭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침체 이슈 속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 곡물은 우크라이나 전쟁 고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일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로 밀이 하락한 가운데 옥수수도 동반 하락. 대두는 날씨에 주목하며 소폭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99%, 철근은 2.20%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9.35	-2.74	+2.44	Dollar Index	113.320	+0.16	+2.96
브렌트유	94.29	-2.61	+2.05	EUR/USD	0.9708	+0.06	-2.78
금	1,686.00	-0.12	-3.31	USD/JPY	145.80	+0.05	+1.16
은	19.49	-2.40	-9.26	GBP/USD	1.0971	-0.76	-4.40
알루미늄	2,236.00	-1.06	-4.77	USD/CHF	0.9965	-0.32	+1.71
전기동	7,596.00	+0.23	-1.58	AUD/USD	0.6273	-0.48	-3.51
아연	2,928.50	-1.20	-3.89	USD/CAD	1.3796	+0.12	+2.09
옥수수	693.00	-0.75	+1.46	USD/RUB	64.7781	+1.60	+8.85
밀	901.00	-3.92	-0.19	USD/BRL	5.2880	+1.87	+2.13
대두	1,376.25	+0.05	-0.63	USD/CNH	7.1707	+0.24	+1.83
				USD/KRW	1,435.20	+1.61	+0.35
				USD/KRW NDF1M	1,431.64	+0.21	+1.1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931	+4.92	+29.77	스페인	3.465	-1.80	+43.40
한국	4.210	+11.00	+12.80	포르투갈	3.374	-0.20	+45.50
일본	0.254	+0.20	+3.20	그리스	4.937	+4.50	+29.40
독일	2.298	-4.40	+42.70	이탈리아	4.679	+3.90	+50.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